

# 초기창업 기업 판로 개척 돕는다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은 오는 16일 창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오픈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 따르면 창업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초기창업 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위메프(wemakeprice.com) 기획전을 진행한다.

우수한 제품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판로에

##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온라인 기획전 내일 오픈... 위메프 통해 천연 섬유향수 등 판매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판매와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서 도내 기업들을 돕고자 추진했다. 16일 위메프 홈페이지를 통해 열리

는 기획전에는 ▲유기농 성인가제귀 ▲비건 화장품 ▲천연 소독제 ▲홍삼음료 ▲천연 섬유향수 ▲버섯 가공식품 ▲스마트 슬링백 ▲건조가공식품이 판매된다. 또한 5개 기업의 홍보 페이지가 전시되며, 위메프 사이트에서 상품들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수 단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내 우수한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 홍보로 온라인 판매에서 자생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과 함께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인 '정음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5년 연속 문화재청 최우수사업에 선정됐다

## 전북대, 고택활용 프로그램 5년 연속 '최우수'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인 '정음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5년 연속 문화재청 최우수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활용사업 중에서 운영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첫 해부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지난 10일 대전 통래관에서 열린 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음 김명관 고택의 건축이야기를 비롯해 고택 한옥 체험, 정음 명품건축 답사, 토론을 통

한 생각 나누기, 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통해 한옥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체득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정음사가 김명관 고택의 옆집을 인수해 내년부터는 이 집을 활용한 체험숙박과 다양한 종가집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남해경 센터장은 "우리 지역 문화재를 통해 다른 지방의 주민들에게까지 문화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학생들의 교양교육 및 전공체험 기회로 확대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 어린이 바둑기사들 전국대회서 준우승 영예

전북의 어린이 바둑기사들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14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0 전국 어린이 바둑리그에서 전북 선수단이 2위를 했다.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바둑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북에서는 최경서(6년), 노우진(6년), 김도형(5년)이 출전했다. 각 시도 풀 리그(3인 단체전)로 치르는 이 대회에서 전북은 12승 2패(승률 85.7%·개인승 31)를 기록 2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경기도와 팀 승수와 승률은 같았지만 개인승에서 1승이 뒤져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정은성 기자



최근 열린 2020 전국 어린이 바둑리그에서 전북 선수단이 2위를 했다.

##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 학술대회서 '베스트 포스터 상'

우석대학교는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사)대한라이프스타일의화학가 주최한 2020 추계 학술대회에서 '베스트 포스터 상(Best Poster Award)'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에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오석홍 교수·김준형 교수·한상국 대학원생·문지수 학생)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예쁜 피마선충을 실험 모델로 이용, 완주 지역 로컬 식자재인 단호박의 향산화 효과를 검증한 연구 포스터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신 약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시스

#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심사

## 전북교육청, 신청기관 대상 오늘 서류 심사·16~21일 현장실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심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12월 초 공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15일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서류 심사에서는 신청 기관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교육 여건(지도자 및 시설), 재정 건정성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어 16~21일에는 각 기관을 현장

방문해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능력, 학생 안전,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한다.

단 전국단위 위탁교육기관은 서류 심사만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서류(50점)와 현장 실사(50점) 점수 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전국단위 기관은 서류심사 35점 이상일 경우 기관수에 관계없이 지정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응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시설, 교원 확보, 학사 운영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좋은 기관들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공모에는 총 20개 기관(전국단위 3개 기관 포함)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성 기자

##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전주대 산학협력단, 2단계 과제 선정

### 2년간 사업비 약 20억원 확보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에 선정, 2년간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전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1단계(과제기획)에서 3단계(사업화 R&D 및 보급·확산)까지 단계별로 지원되며, 공동수요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올해는 8개 권역에서 권역별 최대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전주대는 1단계를 수행한 2개 과제 모두 2단계 과제로 선정돼 2년간 약 2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전주대는 생활밀착환경의 (초)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기능이 결합된 식물공장 기술 및 시제품 개발(스마트 미디어학과 민정익 교수)과 연중생산이 가능한 자동화된 수직형 함초재배기 최적화 개발(스마트미디어학과 송주환 교수)을 과제로 1단계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조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 보급 확산이 가능한 수요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학교의 환경, 공학, 스마트광 등의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변주승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진안**  
JINAN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진안고원의 겨울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진안홍삼스파  
마이산 설경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  
구봉산 구름다리

NAVER | 진안고원 | D2M | 마이산